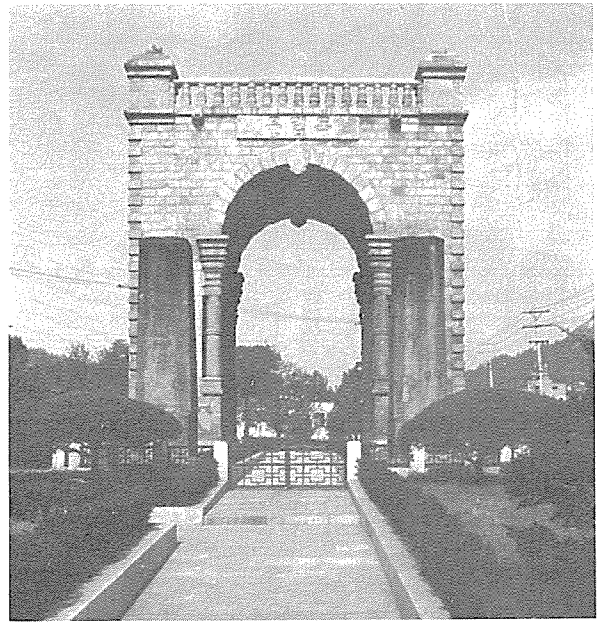


獨立紀念館 建立과 建築界의 役割

金正澈—주·정림건축



□ 明白한 역할을 알아야

70년대 말 우리 建築界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民族博物館 건립계획을 想起하게 된다. 당시의 刮目할 만한 經濟成長의 所産物이었던 이 民族的 사업은, 그러나 그 動機의 必然性이나 關心의 熱情度가 결코 不足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着想과 基礎調査에 그친 空論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 그 오랜 民族的 宿願이, 간사한 일본인들의 歷史教科書 歪曲事件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獨立紀念館 건립이라는 汎國民的 念願으로 확산되어 감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더우기 建築人으로서 우리들의 할일은 무엇이며 우리 建築界의 使命과 責任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이 擧國的인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깊이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중차대한 만큼 우리의 역할이 明白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集合된 民族的 正氣는 우리 專門家들의 使命感과 叡智, 그리고 노력과 봉사의 結晶으로서 具體化될 것이다.

事業의 方向과 內容, 運營과 施行은 어떻게 될까? 敷地와 環境은 어떻게 選定되고 性格지어져야 할 것인가? 또 실제로 하나하나의 임무를 담당해야 할 專門家들은 이러한 하나의 求心

점을 향한 細部作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調和되고 協力해야 하는가? 展示效果 위주의 形式主義를 이번만은 탈피하여 民族的 恒久한 精神的 支柱로서의 그 具體的 實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30여년 동안 放置되다시피한 重大事가 흥분 속에서 자칫 誇大妄想의 이거나 即興의 이거나 非現實的으로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 “民族 비전”의 바른 인식 필요

建築界는 여러 分野의 專門家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혹 우리 社會에서 專門分野別로 그 專門性이 認定되고 尊重되지 못하는 병폐가 있기는 하나, 各者가 使命感에 입각하여 私心없이 本分을 다함으로써 忍苦의 결과를 보여 줄 때, 그러한 風土는 서서히 拂拭되리라 믿는다. 과거의 예를 볼 때 클라이언트가 國家나 公共機關일때 저질러지기 쉬웠던 誤謬, 즉 여러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참여하여 分野別로 철저히 연구검토·작성된 根本的인 마스터 플랜이 先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워크에 의한 行政的인 문제가 于先했던 先例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겠다. 이 경우 六千萬 民族이 클라이언트로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民族的 비전이 어떤 委員會나 혹은 어떤 建築家들의 偏狹할 수 있는 비전으로서 默殺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建築計劃에 있어서 그 創作的 가치나 專門性의 認識水準이 낮은 우리 社會를 감안할 때, 우리 建築界가 一心 同體가 되어 紀念事業에 이바지할 수 있는 實質的인 寄與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建築人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적 矜持와 自負心과 使命感으로 建築界의 同意를 求하고 이 사업이 汎建築界의 積極적 참여로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方案을 다음에 적어 提案코자 한다.

첫째, 建築界 三團體가 汎建築的으로 뭉쳐 우리의 통일된 의견으로 推進委員會를 選出派送하여 民族史觀의 定立에서부터 獨立紀念館 建立計劃樹立과 그 運營 및 推進에 이르기까지 참여케 한다.

둘째, 本事業은 위에 정해진 計劃內容에 따라 우리 建築人의 誠金으로 計劃設計를 公募하고, 올바른 設計競技 運營과 審査 프로세스로서 이 時代에 걸맞고 後孫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當代의 民族的 創作物을 선정하여 提供함으로써 그 實現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일은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우리 建築界의 向上된 能力과 蓄積된 經驗을 模範的으로 보여줄 수 있는 絶好의 기회로서 어떤 特定한 建築家에게 의뢰되어 個人的인 寄與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폭넓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공평하게 公募되어 모여진 아이디어 중에서 엄선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가 널리 社會에 公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案을 分析·檢討·選定하고 建築事業을 변밀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紀念館建立을 願하는 國民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集約할 수 있음은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① 바람직한 創作活動의 正道와 建築家의 역할 및 使命感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올바른 개선

② 建築三團體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社會的·舉國的 役事에 있어서는 聯合하여 團合된 力量을 과시하고

③ 現今까지의 그릇된 懸賞風土를 개선한다는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특히 懸賞問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便宜主義의 으로 이용되어 作品選定에 뜻이 있다기 보다는 人選에 그치고 말았던 事例를 방지하고, 國家와 民族의 象徴的 建物로서의 역사적이며 가치 있는 참신한 안의 選出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숙한 設計競技運營과 公正성이 결여된 심사라는 痼疾의 問題點에서 탈피하여 올바른 懸賞設計 運營方法의 提示와 그 意義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현상 설계라는 美名 아래 부당하게 강요되어 온 建築家들의 不必要한 노력을 拂拭하고 民族中興의 大役事에 建築界가 大同團結하여 同參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提案은 가급적 빨리 실천에 옮겨져서 民族的 念願인 建立事業이 建築界의 이바지로 꽃피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建築文化의 올바른 向上이 이루어져야겠다.

獨立紀念館에 대한 建築的 바램

우리의 獨立紀念館은 우리 民族抗爭의 投影物이기 때문에 民族的 精神과 生活, 그 自體의 진실하고 숨김없는 投影이어야 한다. 그것은 지난 歷史에 대한 肯定的 再照明이며 未來에 대한 民族的 生의 執念이다.

建築的 표현은 造形이나 材料 또는 設定된 狀況으로서 結果되어 지지만,

이 경우 우리는 무엇보다도 意志를 具現하는 문제가 심각함을 느낀다. 獨立紀念館의 참모습은 特定한 형태에서 찾으려는 노력보다 그 있음직한 意味에 있다고 보고 싶다. 建築的 意志는 물론 民族的 意志와 同一線上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民族의 平凡한 意識의 集合이면 足하지 않을까? 어떠한 이유나 동기로서 몇몇 사람이나 몇몇 集團의 獨創의 意志로만 나타나서는 안된다.

□건축 3단체의 단합된 역량 보일때

紀念性を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허무맹랑한 虛構的 結果를 誘發하게 쉽다. 뿌리없는 意識과 強壓의 手段에 의하여 강요된 이미지라든가 거창한 계획 속에서 核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해석한 傳統 意識을 경계해야 한다. 解放後 37년간, 우리나라의 살림을 맡아온 行政府의 總本山인 中央廳建物이나 우리 民族의 文化의 評價를 하나로 集約시키려 했던 景福宮 綜合博物館 建物들이 누구의 마음 속에도 내 나라의 象徴으로서 갖들지 못하고 있음은, 歷史的 價値判斷의 기준이 民衆으로부터 비롯된다는 觀點에서 특히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는 이번 사업의 경우도 脈絡을 같이할 것이다. 우리가 紀念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時間的 斷面과 같은 狀況만이나 어느 理念的 斷面과 같은 狀況만이 아니고, 本質的으로 獨立된 民族으로서 그 永久한 自存의 의미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持續的 狀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意識의 調和, 自然과의 調和, 建物의 전체적 調和, 부분적인 材料나 오브제의 緊張된 調和에서 起因되는, 기쁨에 넘치는 紀念性を 강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民族의식의 集合體로 ...

建築은 한 社會의 意識이 만드는 產物이므로 아무리 조그만 建築物이라도 한 建築家만의 所産이 아닐진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숨결이 와 닿은 民族的 意識이 수합된 結晶體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黃金 몇십킬로를 없

었다던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材料를 썼다던가 하는 年센스는 없어야겠다. 最新의 엔지니어링, 가장 섬세한 테크놀로지를 驅使하되 檢索하고 素朴한 처리로서 지나친 誇示나 꾸밈없이 우리의 自然을 닮아 秀麗하고 端雅하며 清明하고 悠然할 수 있으면, 그래서 周卍와 더불어 生氣와 氣魄이 있는 感興을 줄 수만 있으면 되겠다.

물을 하나로, 열 사람의 힘을 한 사람의 힘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되려면, 스스로 自尊과 矜持를 느낄 수 있는 感動的인 空間을 演出해야 할 것이다. 바쁘고 지친 生活 속에서 문득 생각키우고, 찾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즐겨 찾을 수 있음으로써 새로운 發見과 再確認 속에 고요히 思惟하는 生命의 深淵같은 空感帶를 갖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敷地와 命題의 시퀀스를 明快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獨立紀念館은 遺物이나 資料만을 전시하는 文化的인 측면의 空間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過去를 통해 現在를 다짐하고 未來를 展開할 精神的 修練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段階別로 확장이 가능한 敷地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 建物群의 有機的 構成配置와 外部空間의 처리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教育的이지 못한 환경에 아무리 귀한 資料나 內容을 담아 보았자 그 목적을 達할 수 없을 것이며, 先烈들의 愛國愛族의 抗爭에 대한 精氣를 傳할 수 없을 것이다. 이 紀念館과 環境들은 찾는 이들에게 民族의 矜持와 自尊에 대한 意志와 力量을 되새겨 줄 수 있는 道場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겨레와 後孫들이 언제나 즐겨서 자주 찾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傳統樣式 운운하며 어울리지도 않는 過去의 祠堂과도 같은 기와집의 配列만을 생각하는 偏狹과 齷齪을 피하고, 核當分野 專門家들의 叡知를 충분히 모아 반영하고, 公廳會를 통해 各界의 意見과 衆智를 수합한 歷史的 計劃으로서 建築界의 적극적인 寄與 속에 깊이 남을 훌륭한 事業이 되어야겠다.

“새로운 創造的 造形 필요”

安 秉 義 -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日帝의 丕政에서 解放된지 37년이 지 난 오늘날에 와서 獨立紀念館이 세워 지게 되는 것은 무척 뒤늦은 일이지 만 그래도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우리들 建築에 종사하는 사람들 에게는 그일에 직접 참여하든 안하든 간에 흐뭇한 이야기겠다.

그러나 기쁘고 흐뭇한 마음 한구석 에 잘될까 하는 가느다란 걱정어린 마 음이 일어난다. 이것은 나만이 느끼 는 의구심일까.

獨立紀念館은 어떤 機能을 가지며, 어떤 造形이 어울리겠는가, 그리고 設 計는 어떻게 推進되어야 할까 하는 내 용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 보기로 한다.

□ 기념관의 기능 이해 앞서야

獨立紀念館은 어떤 機能을 갖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 國民의 成人쯤이면 누구든지 알만한 常識 的인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 과거에서 現在에 이르는 社會· 經濟·文化와 政治体制의 변천 등, 우리 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展示場의 性格을 띄울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未來의 우리나라 비전을 보여 줌 으으로써 國民에게 밝은 앞날에 대한 희 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곳을 찾은 外國觀光客에게는 韓國의 모든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들

을 理解시키고, 나아가서 國際親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다. 展示될 내용은 좀더 시일이 지 나면 建立을 추진하고 있는 委員會에 서 밝혀질 것이며, 굳이 우리들 建築 家가 알가알부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떠한 造形의 建築이 어울릴까.

建物の 平面보다 造形부터 생각하 게 된 것은, 建物の 規模나 展示內容 이나 平面의 機能도 아직 發表되지 않 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원래 造形이란 우리들에게 直接的으로 호소하고, 감 명을 주는 것인 까닭이다.

우리들은 建物を 그 造形을 통해 認 識하게 되고 느끼고 감명을 받으며 상징적으로 받아 들이기도 한다. 獨立 紀念館은 그 造形美가 매우 重要한 것 이 된다. 우리들 建築家는 이 紀念館 을 생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어떤 造形이 좋을까 하고 한번쯤은 머리 속 에 그려보았으리라.

물론 推進委員會에서 앞으로 이 建 物の 基本精神을 밝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로서 表現되는 抽象的 인 것으로 建物の 造形과의 사이에는 까마득한 거리와 자칫 잘못하면 그릇 理解되기 쉬운 함정마저도 사리고 있다.

□ 건축양식따라 견해차이 있을듯

建築을 構想하는 과정이, 建築家에 따라 各樣各色이겠으나 내가 하는 스

타일의 예를 든다면 우선 獨立紀念館의 機能을 理解하고 이 機能에 맞는 어떤 이미지(Image)가 떠오르게 된 다. 이 단계는 아직 막연한 모습에 지나지 않으나 이 이미지에 뚜렷한 平面의 機能과 材料와 構造 등 많은 要素가 주어짐으로써 뚜렷한 포용(Form) 을 갖게 된다.

機能→이미지→포용의 세 過程에서 推進委員會가 결정하는 것은 첫단계 인 機能의 아우트라인(Outline)에 지 나지 않는다.

같은 機能이지만, 여기서 탄생하는 이미지는 建築家마다 다를 것이고, 포 용에 이르러서는 더욱 크게 달라질 것 이다.

□ 전통이념 확립할 좋은 기회

앞으로 推進委員會에서는 展示될 紀念物의 量과 이를 수용할 스페이스 와 업무를 수행할 부속空間의 넓이 등 의 아우트라인을 결정하고 아울러 이 紀念館의 精神을 밝힐 것이다. 建國의 理念, 5천년의 빛나는 歷史와 傳統, 祖上들의 슬기로운 등의 單語가 나열 된 文章, 그리고 이 文章을 象徴하는 造形을 꾸미는 것은 우리들 建築家의 일이다.

이러한 글귀에서 우리 國民이라면 으레히 청기와를 씌운 하늘을 향한 웅 장한 樓閣, 서까래와 처마의 유연한

曲線, 또는 花崗岩으로 된 基壇 위에 서있는 獨立紀念館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즈음 해서 推進委員中 몇분이 獨立紀念館이나 이와 비슷한 性格의 建物を 視察하기 위해 世界 여러나라를 돌아 보고 우리의 傳統樣式을 獨立紀念館에 표현해야 한다는 基本方針을 굳히게 될지도 모른다. 卞政 밑에 시달리다가 解放된 東南亞의 여러나라에 세운 獨立紀念館이나 民族博物館 또는 国会議事堂들이 으레히 그나라의 전통적인 建築樣式을 본받은 것을 보았을 터인즉,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하고 느끼는 의구심은 바로 이 紀念館의 造形을 둘러싼 문제이다.

누구든 우리나라 國民들의 머릿속에 썩혀진 傳統樣式의 이미지를 否定할 수는 없다. 단순한 民俗博物館이 아니라 獨立의 氣象을 象徵해야 하는 獨立紀念館인 까닭에.

우리들 建築家라면 누구나 모두 알고 있는 일이지만 基壇 위에 서있는 기와지붕의 傳統樣式은 어디까지나 李朝時代나 또 그 이전의 스타일이지 결코 우리들의 世代에서 要求되는 建物は 아니다.

갓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가마를 탔던 時代의 것이지 TV를 놓고 航空機를 타고 民主主義를 논하는 時代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은 돌과 나무와 종이로 만든 고요하고 아담한 空間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時代에 要求되는 것은 鉄과 콘크리트와 유리와 여러가지 最新設備에 넓적하고 다이내믹하며 개성이 있는 空間이다.

西洋建築史는 한마디로 말해 時代가 바뀌어짐에 따라 좀더 넓고 좀더 높은 空間이 요구되면서 建築의 構造와 表現의 樣式이 달라져 온 變遷의 歷史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리 넓지않은 空間이면 족했으므로 나무와 돌과 기와지붕으로 집을 지었다. 단 그 材料 밖에 없었고 그러한 構造 밖에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獨立紀念館의 巨大한 空間을 나무기둥과 서까래 대신에 콘크리트로 꾸미고 경사진 스타브에 청기와를 씌워 놓고 國民들이 이런 것을 원

하니까, 또는 東南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安住할 것인가.

李朝時代의 우리 조상들에 비해,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은 덩치도 머리도 큰 巨人으로 자란 셈이다. 巨人이니까 巨人에 맞는 것을 쓰면 되는 것일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라는 말이 있다. 獨立紀念館이라는 새 포도주는 어떠한 새 푸대에 담아야 할까.

獨立紀念館을 짓게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앞으로 당분간 시끌시끌하겠구나 하고 느낀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 傳統的인 建築樣式이 되어야 한다는 國民의 바람을 뒤에 업은 大義名分과 청기와를 씌우는 것만이 傳統이나 하는 두갈래의 論爭이 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기회에 올바른 傳統理念을 확립하고 그 본보기가 되는 獨立紀念館을 建立하는 것이 우리들 建築家에게 주어진 使命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이 紀念館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 世代들에게 傳統이란 청기와를 씌워 놓는 것이라는 그릇된 思考를 올바르게 고쳐놓는 試金石이 될 것이다.

傳統을 계승한다 라는 말에서 傳統이란 낱말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西歐의 建築史를 훑어보면 그리스·로마·고딕... 이렇게 이어지는 建築樣式은 모두 그 時代의 精神을 충실히 反映한 建築이었다. 우리나라 또한 高麗·新羅·李朝 이렇게 약간씩 다르다. 어느 時代이건 그 時代 사람들에게는 살고 있는 時代가 곧 現代이며 現代의 生活·思想·精神이 反映된 것이 現代建築이다.

歷史란 언제나 변천하고 발전하는 現代라는 時間의 連續인 셈인데 이 現代建築이 後世에 이르러 傳統을 意識시킨다. 즉 傳統이란 過去樣式의 모방이 아닐뿐더러 차라리 斷絶이나 超克이라는 뜻에 가깝다. 웬 까닭인지 傳統이라는 낱말의 참뜻이 그릇 解釋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줄여서 現代의 精神에 充實한 建築이 곧 傳統意識의 精神이다. 옛날의 樣式에 떠밀려 내려가는 한 우리들 時代의 建築은 없는 셈이며, 모방한 過去時代의 連續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文化·文明은 20世紀인데 建築은 李朝時代인 셈이다.

언제나 위대했던 時代의 建築은 결코 그 이전의 조상들의 樣式을 초월한 새로운 創造였다. 흐르지 않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個人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民主主義의 위대한 歷史는 우리에게 暗示하는 것이 있다. 懷古趣味의 지난 樣式을 고집하는 現代精神에 違背되는 그릇된 方法으로 民族의 團結을 꾀했던 일본·독일과 이탈리아 軍國立義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모두 망해버렸다. 일본은 帝冠樣式이라는 스타일을 만들었고, 지금은 허물었지만 半島호텔이 청기와를 씌웠다. 나치 독일도 역시 지붕을 씌운 목직판 스타일을 고집했고, 이탈리아는 로마樣式인 아치로 建物を 장식했다.

獨立紀念館의 基本構想이 發表되기도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너무 과민한 탓이 아닐까.

오래 전 일인데 春川가는 길목, 자그마한 휴게소를 설계했을 때의 일이다. 그 일을 담당했던 官當局은 내가 스케치한 平面은 좋아했으나 지붕은 청기와를 씌우라고 고집했다. 언제까지 李朝樣式을 팔아먹을 것인가? 앞으로 100년? 200년? 하고 나도 대들었으나 결과는 뻔한 일이었다.

지금도 그 자리에 現代의인 平面의 커피숍이 청기와의 갓을 쓴채 江가에 서있다.

만일 프랑스가 그들의 革命紀念館을 세운다면 어떤 스타일로 지을까. 그러나 그들의 조상樣式인 고딕聖堂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다.

□ 과거 양식을 초월한 새 造形

獨立된 主權國家라는 自覺과 民主主義를 이땅에 이루어 놓겠다는 意志와 先進國 대열에 끼어 보겠다는 氣象 등이 곧 우리 民族의 힘이며 이 힘이 象徵된 獨立紀念館이 세워질 때 後世에 이르러 傳統의 意識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建築家인 우리들에게 要求되는 것은 청기와나 基壇이 아니라 과거의

樣式을 초월한 새로운 어프로치를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創造의 造形이겠다.

數千年의 歷史를 굽어 볼 수 있는 歷史라는 巨人의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이 기념관을 構想해야 한다. 獨立紀念館의 設計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건축계는 이 문제 때문에 더욱 시끄러워지게 될 것 같다.

누구에게 設計를 맡길 것인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의 방법이 있다.

1. 어떤 個人에게 맡기는 경우
2. 數名の 1·2 차에 걸친 지명 현상설계
3. 不特定 多數의 한국에서 태어난 건축가(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게 현상설계를 시킨 다음 2 차 현상설계
4. 設計委員會를 구성, 數人이 공동설계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맡기는 案은 그 명예로운 건축가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 民主主義를 표방하는 국가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둘째 案은 선택된 數人의 건축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推進委員會에서 기준을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투표로서 뽑을 수 밖에 없겠다. 그러나 선택된 數人에 끼이기 위해 아름답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세째 案은 완전히 門戶를 개방했으니 둘째 案과 비교할 때 잡음이 없는 게 큰 장점이다.

둘째나 세째 案이 모두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문제는 현상설계의 심사와 정이다. 이제까지 통털어 열번이 넘는 현상설계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심사결과가 개운치 않았다. 많은 건축가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는 일이므로 다시 說往說來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또 대개의 경우 審査委員의 선정이 잘못된 것은 建築家보다 해당 行政部측 인사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건물을 사용하는 각도에서 平面의 機能을 검토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겠으나, 建築은 平面이 전부는 아니며 적어도 指名현상에 끼일 정도의 건축가라면 그 기능을 行政官보다도 오히려 더 잘 파

악하리라고 생각한다. 建築의 審美感이 결여되었다고 보아도 될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不合理한 이야기이다. 이제저래 현상설계 때마다 말이 많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2·3 案의 공통된 문제점이다.

생각다 못해 짜본 것이 네번째의, 몇사람이 모여서 그야말로 기지를 모아 좋은 紀念館을 만들어 보자는 案이지만 人選의 문제에서 2案과 같으니 시끄러워 지겠고 또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여럿이 모여서 한 作品을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공통으로 작품을 하는 습관에 전혀 익숙해 있지도 않다. 피카소와 마티스와 金基稔화백, 金煥基화백을 모아놓고 모나리자를 그리라는 이야기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여러가지 생각나는 방법들을 두서없이 적어 보았지만 모두 시끄러워질 게 분명하다. 우선은 推進委員會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다. 그저 모처럼 이루어지는 獨立紀念館,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빌 따름이다.

“궁극적 실제에 도달하는 일”

金 琪 碩 - 아름건축연구소



□ 공감 위해 궁극적 실제 도달 필요

기념관 건축에 대하여 쓴다는 일은 나에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주었다. 왜냐하면 기념관 건축이라는 그것 자체가 몹시 당황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자료 전시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기타 어찌고 저찌고 하는 이야기로서 기념관은 되지 않는다. 기념관 건축은 객관적 논리가 가장 바보스러워지는 건축이다. 건축에는 공식

이 없다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공식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진 건축설계의 명제가 나오면 얼른 몇가지 종류의 공식이 떠오르게 마련이며,

더군다나 불행하게도 <독립기념관>같은 공공건물이 설계된다면 아마 이러한 형태와 디자인 수법을 가진 설계가 나오리라 하는 것은 금방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한국적>인 것을 다시 떠들기 시작할 것이며 요즈음 한국적 현대건축이라고 공식화된 어떤 기법을 무책임하게 엮비슷히 늘어놓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객관화된 지식능력으로 출발할 때 <기념관>은 이미 사라진다는 것이다. 기념관이라는 테마는 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그 주관적인 것이 <기념성>을 가지고 동질성(Identity)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테마의 궁극적 의미, 궁극적 실재에도 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축의 궁극적 실재란 아주 핵심적이고 형이상학적이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발현)되어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며 알아보기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전대 한국의 초가집(民家)을 보면 안정과 평화와 간결한 생활의 복락을 원하는 地上지향적인 마음이 아주 솔직하고 단순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궁극적 실재의 모습을 보인다.

□역사적 의미성 표출이 문제

한국의 상류층의 전통건축에는 天空지향적인 마음이 유연하고 어색하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전통건축이 도달하였던 공간은 극히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그대로 기능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통합과 분리의 화합에서는 유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허위가 보이지 않으며 극히 형이상학적이다. 우리는 건축의 궁극적 실재의 실례를 가까운 우리들의 유산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정신의 발전은 단절되었고 36년간의 객관적 단절 후의 36년이 일년넘게 흐른 지금까지 우리는 혼미상태에 빠져 있다.

도대체 독립이란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 적

이 있는가?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주권을 찾았다는 것일까? 주권이라는게 뭘까? 국가의 주권이란 개별적 주권의 적분적 개념일 뿐이며, 自我의 사실의 현상적 드러남일 뿐인 것이다.

독립이란 결국 自我의 발현인데, 自我의 발현은 부단히 궁극적 실재를 찾는 마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마음ियो, 그것이 또다시 추구되지 않는다면, 또 그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독립기념관>을 생각하는 것은 노골적인 년센스인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역사적 계기에 충격을 받아 떠들썩하게 돈을 모아서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공표하게 되거나 않을는지.

적어도 독립기념관이 건축에 의하여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걱정은 훨씬 실감나는 걱정이요 가까운 걱정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發想위해 폭넓은 참여 있어야

우리는 아마 서울주변의 어디에, 세종문화회관(그것 자체는 훌륭한 건축이지만)의 아류같은 건축들을 모아놓고, 상처받은 시대의 증거들을 늘어놓고,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조명어 어떻게 환기가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한국적인 의장이 어떻게 떠들어 떨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마도 거국적인 지식이 동원되겠지.

그러나 지식의 집산이 지성을 이루지는 않는다. 지성은 즉각적인 것이다. 즉각적인 실재에서 출발하는 일이며, 그 실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부디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상처>를 기념하겠다는 것일까? 목적이 상처의 되풀이에 있다면, 올바른 지성은 <상처기념관>같은 것을 세우지는 않는 것이 국민건강상 좋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가 상처에 매달린다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부정적인 마음은 형태를 바꾼 부정적인 마음을 낳을 것이며 우리는 다같이 병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아의 개현은 상처를 극복한 마음에서 꽃피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

성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독립을 말할 수 있는가?

<독립기념관>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건축가로서 가질 때,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건축이 추구하여 왔었던 궁극적 실재의 단순성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포착되지 않으면,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지성과 창조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공간인식적 창조력으로 <독립>의 의미에 도달한다면, 어떤 역사적 의미성의 표출에 성공한다면, 그에 내장된 상처의 기념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부딪치고 있는 문화적 현실 속에 내장된 상처의 뿌리를 발견하는 좋은 장소를 가지게 될 것이며, 기념관 모금운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시대적 현상 속에 자리잡고 있는 식민지적 잔해, 상처의 변형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일이겠지만 이것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왜곡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것을 포착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점들을 다시 거기서 만나게 해줄 때 기념관은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국민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의례적인 단체관광 대상의 범주를 넘는 <살아 있는 충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리라고 본다.

또 구체적인 실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상과정>에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모뉴먼트의 설계에는 건축적 지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비록 충분한 표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설계의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각의 깊이에 따라 더 근원적인 발상은 어느 누구로 부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건축가적 지식으로 부터도 자유로와질 필요가 있다. 발상이 있는 다음에 전문가들의 협동이 필요한 것이다. 지식은 지성의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